

프로야구 최저연봉 인상에도 웃지 못하는 저액 연봉자들

KBO 2700→3000만원...KIA 재계약 대상 36%가 2000~3000만원대 연봉협상, 기존 금액서 시작...400만원 올려도 실제 100만원 인상 그쳐

‘최저연봉’이 이번 겨울 KBO 스토브리그의 키워드 중 하나가 됐다. 지난 1월 KBO는 2020년 첫 이사회를 열고 새로 시행하는 제도 등을 결정했다. 가장 큰 변화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FA 등급제 시행’이었다.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최근 3년간 평균 연봉 및 평균 옵션 금액으로 A등급(구단 연봉 3위 이내·전체 연봉 30위 이내), B등급(구단 연봉 4~10위·전체 연봉 31~60위),

C등급(구단 연봉 11위 이하·전체 연봉 61위 이하)으로 나뉘. 등급별로 보상 규정을 달리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많은 선수가 현실적으로 우선 반긴 변화는 ‘최저연봉’이었다. 올 시즌까지 2700만원의 최저연봉을 받았던 선수들은 내년 시즌부터 11.1% 인상된 3000만원을 받는다. 모든 선수가 FA를 목표로 프로 무대에 뛰어 들지만, 대박을 이루는 선수는 많지 않다.

대부분 선수는 당장 1년 뒤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함에 연봉까지 고민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프로 스포츠 중 가장 많은 144경기를 소화하고, 다른 종목과 달리 승리 수당 등도 없는 만큼 300만원이 인상된다고 해도 선수들에게는 아쉬운 연봉이다. 타지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 선수들에게는 월세 등을 감안하면 더 뼈아픈 연봉이다. 여기에 짧은 선수 생명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선수는 FA가 아닌 ‘최저연봉’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20시즌 KIA 연봉 재계약 현황을 봐도 재계약 대상자 47명 가운데 17명의 연봉이 2000~3000만원대이다. 하위 17명의 평균연봉은 3182

만원. 5000만원 이하 연봉자는 총 26명으로 전체의 50%가 넘는다. 역대 연봉자는 단년 계약을 하면서 재계약 대상자로 분류된 양현종(23억원) 포함, 김운동(1억3000만원), 나주환(1억2000만원), 박준표(1억1000만원), 박찬호(1억5000만원) 그리고 NC로 이적한 문정찬(1억1500만원) 등 6명이었다. FA보다 최저연봉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프로’라는 타이틀과 선수 생활 여건을 고려하면 부족한 연봉이지만 어찌 됐든 내년 새로 출발하는 신인 선수들과 함께 2000만원대 연봉을 받았던 선수들은 올 시즌 성적과 상관없이 자동 인상 효과를 누리며 3000만원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쉬움을 호소하는 선수가 나올 전망이다. KIA 타이거즈 저액연봉자의 연봉협상 기준점은 새로운 최저연봉 3000만원이 아니라 기존 연봉이 된다. 예를 들어 올 시즌 최저연봉 2700만원을 받은 선수가 연봉고과상 400만원 인상 결과를 받으면, 내년 시즌 연봉은 3100만원이 된다. 400만원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100만원 인상에 그치는 셈이다. 선수협 판공비 사태 등과 맞물려 ‘최저연봉’이 이번 스토브리그 KBO리그 선수들의 관심사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특급 외인 투수들 잔류...내년에도 야구 볼맛 나겠네

ML 러브콜 받던 KIA 브룩스·롯데 스트레일리·키움 요키시 재계약

2021시즌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놓고 특급 외국인 선수들의 2라운드 대결이 전개된다. 3일 롯데 자이언츠 팬들을 웃게 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롯데는 댄 스트레일리와 보정금액 120만달러(약 13억원·계약금 30만달러·연봉 90만달러·인센티브 별도)에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KIA 애런 브룩스에 이어 박리그가 주시하던 스트레일리까지 잔류를 선택하면서 KBO 팬들은 반색하고 있다. 박리그 러브콜을 뿌리친 두 특급 외국인 선수로 내년 시즌 KBO리그 마운드 대결이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평균자책점 2라운드 대결이 흥미롭게 펼쳐질 전망이다.

앞서 2일 올 시즌 ‘평균자책점왕’ 키움 히어로즈의 에릭 요키시가 연봉·인센티브 포함 총액 90만달러(약 10억원)에 재계약을 하면서, 올 시즌 평균자책점 1~3위를 찍은 세 외국인 선수가 내년 시즌에도 KBO에서 뛴다. 내년 시즌 KBO리그 3년 차가 되는 요키시와 달리 브룩스와 스트레일리는 올 시즌 낮은 리그에서 완벽하게 적응한 만큼 내년 시즌 기대감을

더 크다. 2019년 KBO리그에 데뷔한 요키시는 지난해 30경기에 나와 3.13의 평균자책점으로 13승 9패를 찍었다. 올 시즌에는 27경기에서 2.14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12승 7패를 수확했다. 스트레일리는 올 시즌 31경기에서 평균자책점 2.50으로 15승 4패를 거두며, 롯데 외국인 투수 단일 시즌 최다승 기록을 세웠다. 평균자책점 2위에 이름을 올린 스트레일리는 205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탈삼진 부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역대 단일시즌 탈삼진 9위 기록이기도 하다. 브룩스는 가족의 교통사고라는 돌발 변수로 시

즌 원주를 하지 못했지만, 23경기에 나와 151.1이닝을 소화하면서 11승 4패, 평균자책점 2.50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9월에는 0.95의 평균자책점으로 4전 전승을 달리는 등 차원이 다른 피칭도 선보였다. 그리고 브룩스는 지난 11월 19일 KIA 구단과 선수단 그리고 팬들의 따뜻한 정을 이야기하면서, KBO리그 복귀 소식을 알렸다. 해외 스카우트들을 허탈하게 만든 브룩스에 이어 스트레일리까지 잔류를 선언하면서 2021시즌 ‘특급 외국인 투수’들의 전쟁이 KBO리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



산 넘어 산 베일러 베이스의 가드 제러드 버틀러가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뱅커스 라이프 필드하우스 경기장에서 열린 ESPN 지미 V 클래식 경기에서 일리노이 파이팅 일리니 수비진을 뚫고 슛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현진, 토론토 야구기자협회 ‘올해의 투수’

올 시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에이스로 맹활약한 류현진(33)이 미국 야구기자협회(BWAA) 토론토 지부가 뽑은 ‘올해의 투수’에 선정됐다. BWAA 토론토 지부는 3일(한국시간) “류현진은 올 시즌 12경기에 선발 출전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2.69, 탈삼진 72개를 기록했으며, 아메리칸 리그 평균자책점 4위, 최다 탈삼진 9위, 삼진/볼넷 비율 8위, 최다 이닝 공동 10위 등 많은 부문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류현진은 마지막 10경기 중 9경기에서 2자책점 이하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적을 냈다”며 “토론토 구단은 류현진의 활약 속에 2016년 이후 첫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BWAA는 무엇보다 류현진이 높은 bWAR(대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베이스볼 레퍼런스 기준)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BWAA는 “류현진의 bWAR은 3.0으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무키 베츠(3.4·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셰인 비버(3.2·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이은 3위”라고 전했다. WAR은 대체 선수와 비교할 때 얼마나 많이 팀 승리에 기여했는지 나타내는 수치다. /연합뉴스

최지만, 내년에도 ‘탬파베이맨’

美 지역 언론, 연봉 협상 보도

한국인 메이저리거 최지만(29·탬파베이 레이스)이 내년에도 탬파베이에서 뛴다. 탬파베이 지역지 ‘탬파베이 타임스’는 3일 “탬파베이가 최지만을 포함해 타일러 글래스나우, 조이 엔들, 마누엘 마르코프 등 7명과 연봉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애초 최지만은 논텐더(non-tender·조건 없는 방출) 후보로 꼽혔으나 탬파베이에 잔류하는 데 성공했다. 전날까지 현지 언론은 탬파베이가 코로나19 사

태로 인한 재정난 탓에 몇몇 선수들을 논텐더로 풀 수 있으며, 최지만도 그중 한 명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탬파베이는 우완 투수 에드가 가르시아만 논텐더로 풀었을 뿐 대부분의 선수를 지켰다. 올해 85만달러를 받은 최지만은 구단과 연봉 협상을 통해 내년 시즌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 현지에서는 최지만이 올 시즌보다 2배 가까운 160만달러를 받을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올해 탬파베이 주전 1루수로 뛴 최지만은 42경기에서 타율 0.230(122타수 28안타) 3홈런 16타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전남 전경준 감독, 2022년까지 지휘봉

구단, 2년 재계약 발표

전경준 감독이 2022년까지 전남드래곤즈 지휘봉을 잡고 승격에 도전한다. 전남은 3일 “플레이오프에 아쉽게 진출하지 못했지만, 전남의 문제점으로 꼽히던 수비 안정화를 이루고 전남의 팀 컬러를 살려낸 점과 전 감독이 보여준 전남드래곤즈의 청사진을 높이 평가했다”며 전경준 감독과의 2년 재계약을 발표했다. 2019년 전남 수석코치로 부임한 전경준 감독은 이해 7월 파비아노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면서 감독대행으로 선임됐다. 감독대행 부임 후 7승 5무 3패로 팀을 이끌며 리그 8위에서 6위로 최종순위를 끌어올린 그는 팀 안정화를 이루며 시즌 종료 후 정식 감독으로 선임됐다. /연합뉴스

올 시즌에는 ‘짚줄수비’를 앞세워 시즌 최종전까지 4강 싸움을 벌였다. 서울랜더와의 최종전 1-1 무승부로 아쉽게 플레이오프 진출은 이루지 못했지만, 우승팀 제주유나이티드(23실점)에 이어 최소 실점 2위(25실점)에 오르는 성과를 냈다. 끈끈한 조직력으로 전남의 팀 컬러를 살린 전경준 감독은 구단의 재신임을 받아 다시 1부리그 복귀에 앞장선다. /김여울 기자 wool@

